

종교·복지

‘소리없는 범문’ 탕화 그리며 “불교의 참뜻 깨우쳐요”



지난 10일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에서 열린 탕화 수업에서 수강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대의 장소만 다를 뿐 불화를 그리는 것은 곧 수행이요. 그림을 그리지만 마음을 닦는 일이지.”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탕화실. 33㎡ 남짓한 크기의 방에 20~50대까지, 학생부터 주부, 서양화가, 스님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1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소리없는 범문’이라 불리는 탕화를 그리느라 여념이 없다.

“시대의 장소만 다를 뿐 불화를 그리는 것은 곧 수행이요. 그림을 그리지만 마음을 닦는 일이지.” 탕화는 다른 그림을 그릴 때보다 기교와 정성이 몇 갑절이나 들고 섬세한 손재주와 인내심이 없으면 그릴 수 없다며 “이 모든 과정을 힘들지 않게 느끼게 하는 것이 불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는 습작과정도 만만치 않다. 초등학교생들이 습작공예를 지도 위에 올려놓고 붓을 뜨는 것처럼 초본 위에 한치의 일종인 손지를 올려놓고 비치는 모양대로 먹칠을 따라 그리는 ‘등각기’ 과정을 거친다.

종교칼럼



도암

여우가 어느 연극 배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의 불경을 하나하나 들춰 보았다. 잠깐간 가면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중얼거렸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것인데 이렇게 얼굴만 있고 뇌는 없지..’

본분 밖의 이야기

소수가 대다수의 이익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참으로 힘들 것이다. 가득된 밖에 있는 사람이라니 말이다.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고 편애하지도 않는 지도자를 원한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지도자도 어려움은 겪게 마련이다. 힘든 일을 맡는 자는 반드시 원망을 감내해야 하고, 일하는 자는 반드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원망의 말 아래에는 자비인욕(慈悲忍辱·사랑하고 가엾게 여겨 욕됨과 고통을 참는 일)이 있고, 비판의 말 가운데는 금옥(金玉·금과 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아주 귀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가지고 있다.

국민은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기를 바란다. 함께하고 있다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것이다. 소외되고 배제됐다는 느낌은 배신감으로 다가온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가 깊어진다. 함께하고 보호받고 싶다는 바람이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함께 행복해야 한다.

법구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전도된 지견과 소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결국 낡고 고통스러운 세계에 떨어질 뿐이다.”

“예리한 경각심으로 늘 자신을 돌이켜 살펴, 헤서는 안 될 일에 끌려들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굳은 의지로 실천하는, 지혜로우며 각성된 사람에게는 마침내 고통이 다하느니라.”

(송광사 올원)

세례 받은 가톨릭신자 세계 인구의 17.3%

세례 받은 가톨릭 교회의 신자가 11억3천75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1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12일 교황청 통계처의 ‘교회 통계 연감 2006년’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는 전년에 비해 578만4천명이 늘어나 11억3천75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신자 수가 468만명(2007년 487만명)으로 전 세계 227개국 가운데 48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신자수 5위로 필리핀(7천50만명)이 가장 많고 이어 인도(1천840만명), 인도네시아(662만명), 베트남(599만명)의 순이었다. 일본은 53만7천명.

또 세계적으로는 브라질이 1억5천781만명으로 가장 신자가 많았고 이어 멕시코(9천637만명), 필리핀, 미국(6천753만명), 이탈리아(5천645만명), 프랑스(4천642만명)의 순이었다.

연필뉴스

세상에 희망과 평화를 전합니다

‘성바오로팔수도회’ 닥종이 인형 광주 순회 전시회

이메일 44편 엮은 ‘수도원에서 보내는 편지’도 펴내

문화 활동을 통해 세상에 희망과 평화를 전파하고 있는 여자수도회 ‘성바오로팔수도회’가 광주에서 닥종이 인형 순회전시회를 연다. 16~23일까지 광주시 북구 유동 성바오로팔수도회 서원.

이들이 매주 월요일 인터넷서점을 담당하는 이레나타, 김 딸피나, 임 안젤라 등 3명의 수녀가 2000년부터 최근까지 회원들에게 보냈던 이메일 편지 44편을 엮었다.



회원인 3만 여명에 이른다. 사순절을 보내며 탕자나무로 가시관을 만들고, 뽕색이라도 그득한 향기를 뿜는 모과나무를 닦으려는 수녀들의 착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성바오로팔수도회는 1915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설립돼 1960년 한국에 진출했다. 책을 출간하고 오디오·비디오 등을 제작해 복음을 전하는 ‘바오로팔 서점’은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4일부터 광주서 전국불교청년대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박법수)가 14일부터 이틀동안 광주 무각사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27회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18 국립묘지를 방문해 전국불청대회 선언문을 선포하고 헌혈증서 전달식, 108배 참회회양 등이 이어진다. 이밖에 나눔의 마당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지원하는 결의문 선언낭독과 북남나무심기 지원 사업 현장 모금 등의 행사도 펼쳐진다. 문의 062-226-0109.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land, and commercial spaces. Includes sections for '대인동상업부동산', '일가공인중개사',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지공인중개사', '금보부동산컨설팅',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nd '한일지도판매(주)'. Each listing provides details on location, size,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